

2016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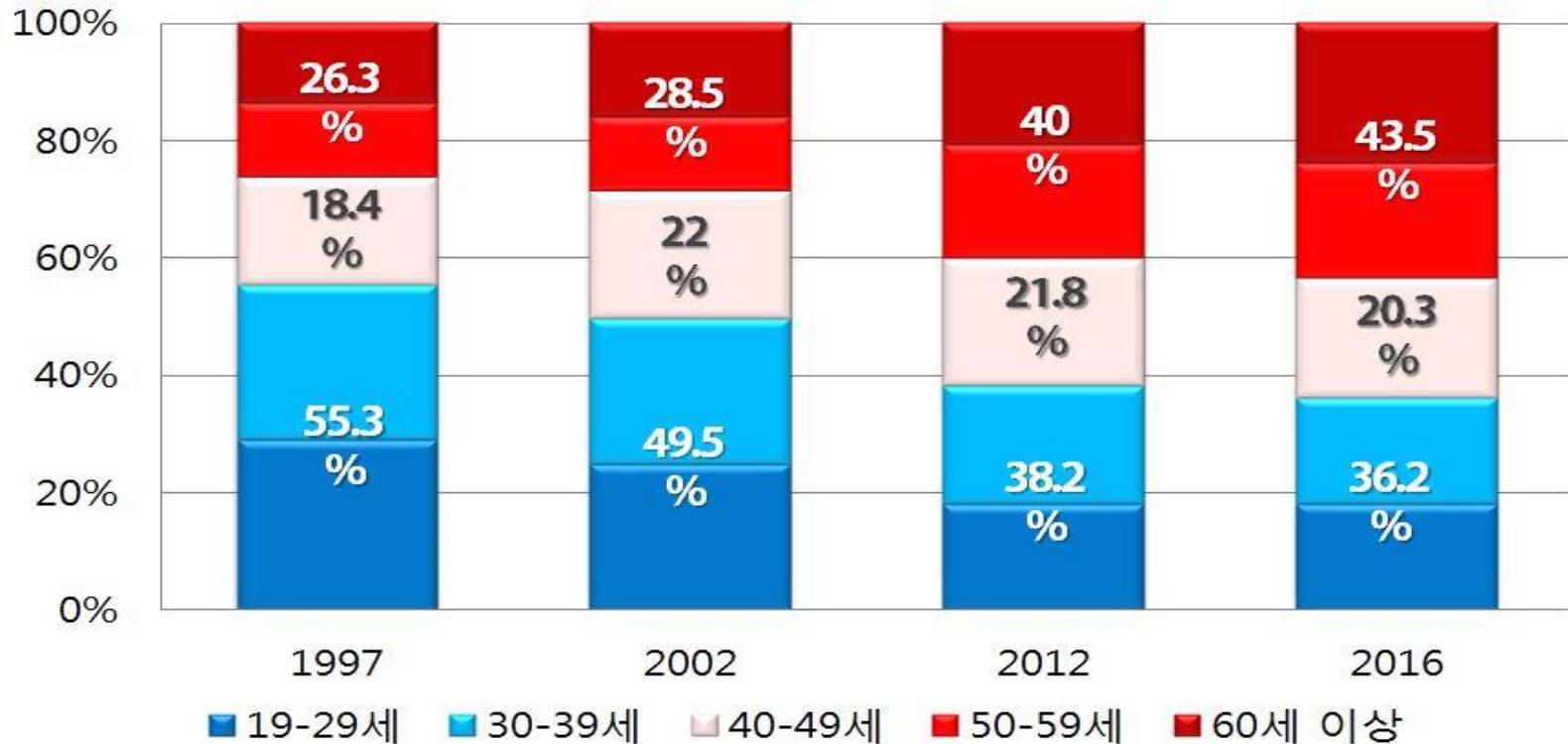
2015. 6. 2

새정치민주연합



1. 인구정치학: 2030 < 5060

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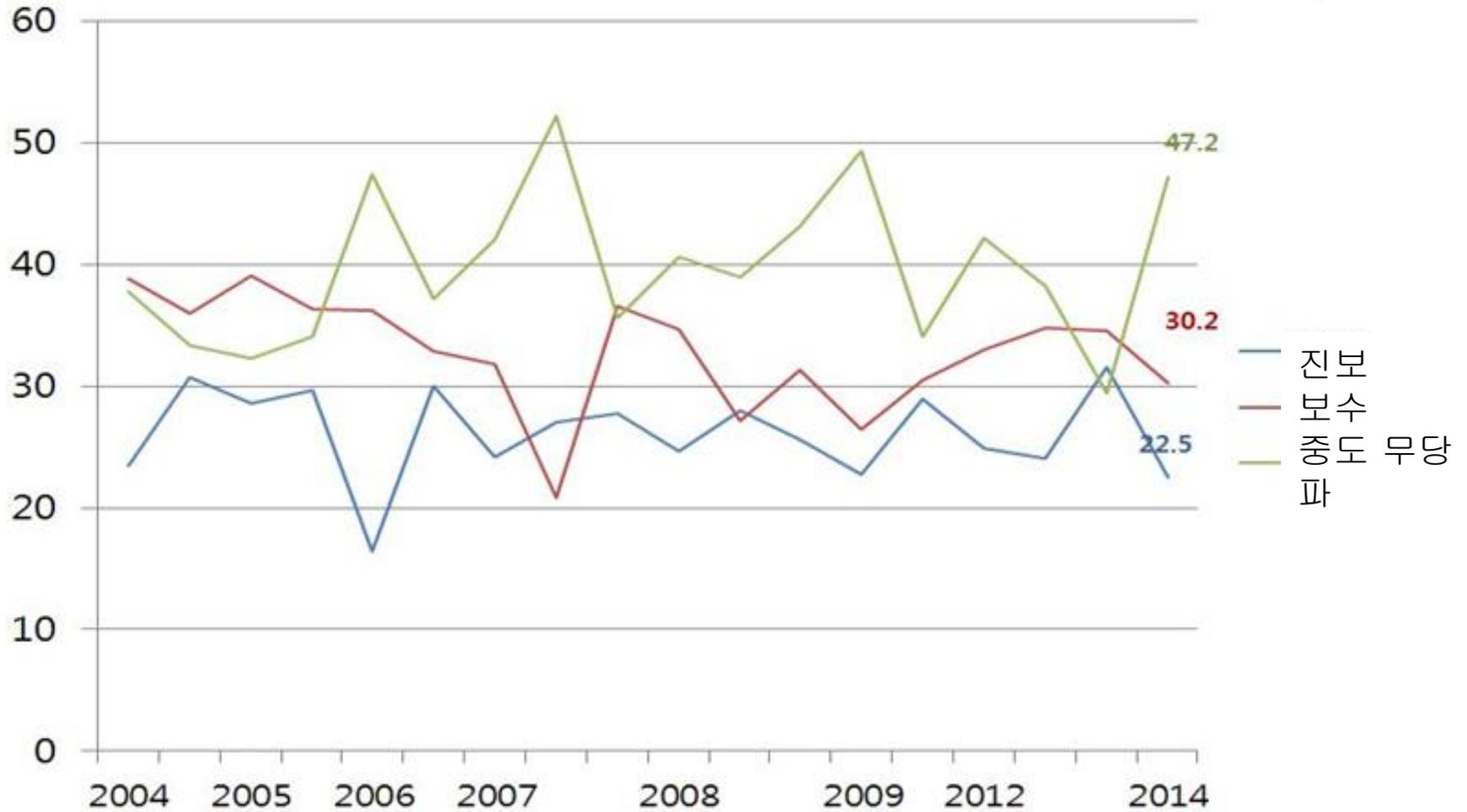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 추계인구

- 2011년 2030 VS 5060 인구비율 역전
- 2016 총선 2030(36.2%) < 5060(43.5%)

2. 이념의 정치학: 늘어나는 중도 무당파

[보수, 진보, 중도 무당파 변화 추이]



자료: 2004-2014년까지 여론조사 결과 취합

3. 지역의 정치학: 호남 < 충청, 수도권 지역주의

[충청, 호남, 영남 인구변화 추이]



➔ 실제 호남과 충청의 인구 역전: 2013년 5월

자료: 통계청 지역별 인구추계

4. 강점과 약점

새정치민주연합 SWOT 분석

강점(Strength)

- 권력의지
- 시민사회
- 복지 및 경제민주화 주도세력
- 중산층 및 서민 대변 세력

약점(Weakness)

- 공조직(기간당원) 등 열세
- 관변, 직능 외곽조직 열세
- 자금동원력 열세
- 종편 등 언론환경 열세
- 인터넷, SNS 등 열세
- 당원교육 시스템 등 열세
- 분열의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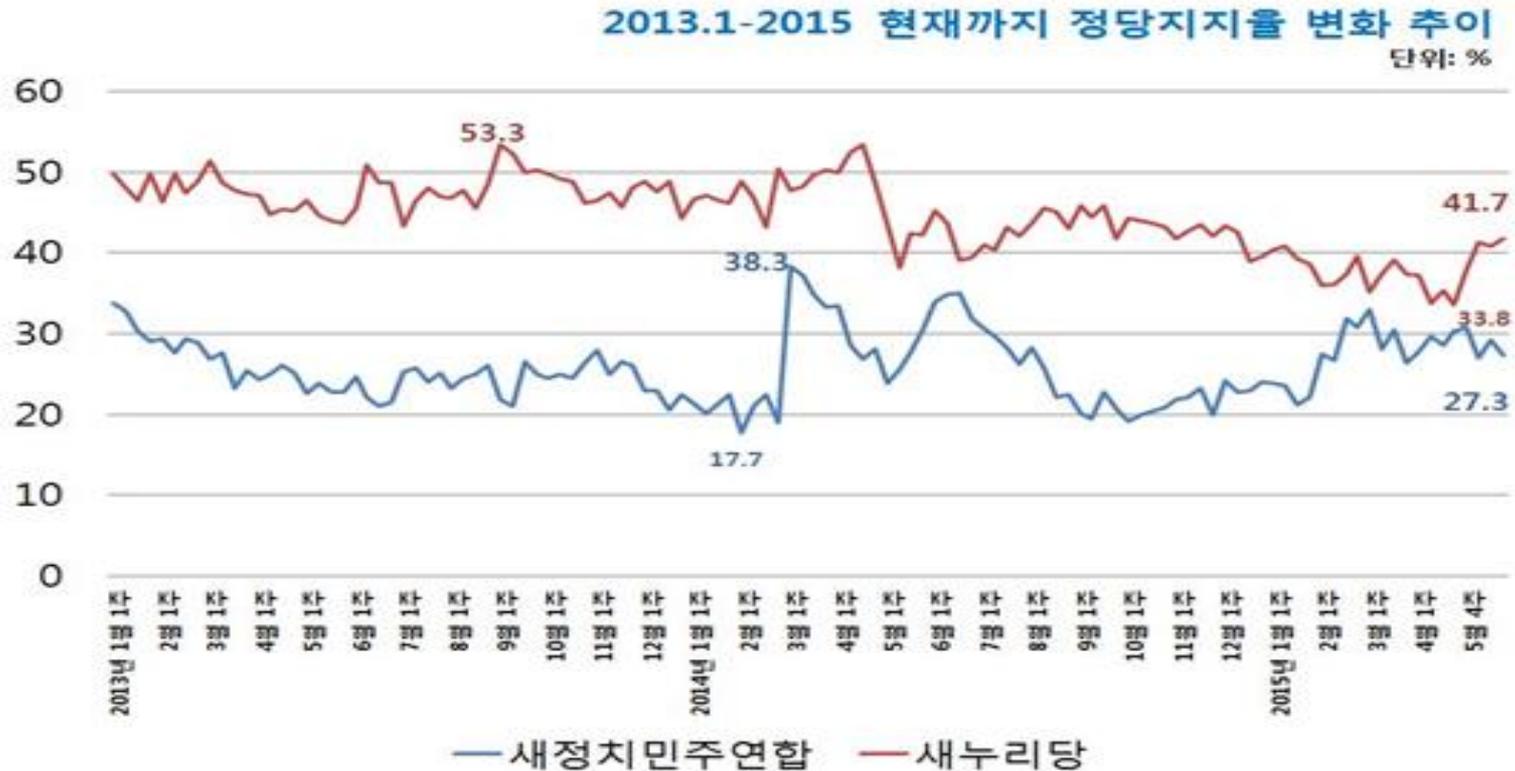
기회(Opportunity)

- 보수정권 10년 피로감 누적 및 평가
- 집권 4년차 레임덕
- 다양한 대선 후보군
- 불평등사회, 경제실정
- 수도권 민심의 가변성
- 충청권의 광역단체장 교두보

위협(Threat)

- 호남 자민련 출현 및 수도권 민심이탈 우려
- 일여 다야의 선거구도 우려
- 박근혜 대통령 강한 충성도
- 젊은 세대의 이탈 가능성

5. 정당지지율은 정당의 기초체력



출처: 리얼미터

- 항상적인 캠페인(permanent campaign)이라는 관점을 갖고 지지율 관리

6. 역대 총선 결과

역대 총선결과로 본 최대치 최소치

❖ 우리당은 112~58석, 새누리당은 128~98석, 제3당은 14석~68석

❖ 새누리당이 가장 안정적인 의석 확보

괄호는 비례대표 수 / 총합

	<u>새정치민주연합</u>	<u>새누리당</u>	그 외	지역합계	
13대(1988년)	54 (16)	87 (38)	83 (21)	224	(299)
14대(1992년)	75 (22)	116 (33)	46 (7)	237	(299)
15대(1996년)	66 (13)	121 (18)	66 (15)	253	(299)
16대(2000년)	96 (19)	112 (21)	19 (6)	227	(273)
17대(2004년)	129 (23)	100 (21)	14 (12)	243	(299)
18대(2008년)	66 (15)	131 (22)	48 (17)	245	(299)
19대(2012년)	106 (21)	127 (25)	13 (8)	246	(300)
평균	85	113	41		
표준편차	±27	±15	±27		

자료: 고한석, 마이크로정치학

7. 기회요인은 늘리자: 요충지역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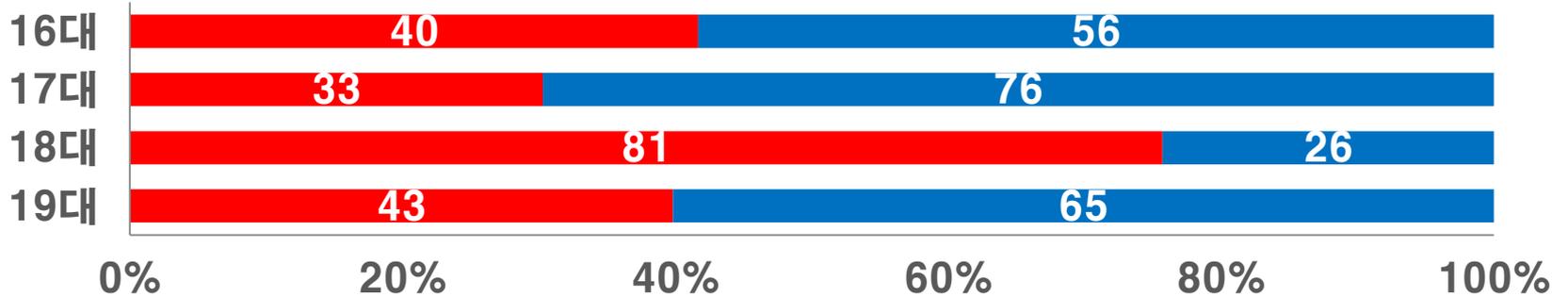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수도권	서울	5	21	15	3	4
	경기	6	15	15	13	3
	인천		3	4	5	
충청	대전	1	1	2	2	
	충남		1	2	3	4
	충북		1	4	1	2
강원제주	강원			1	4	4
	제주		3			
PK	부산				5	13
	경남		1	2	3	10
계		12	46	45	39	40
		58		79		

재야 · 486의 다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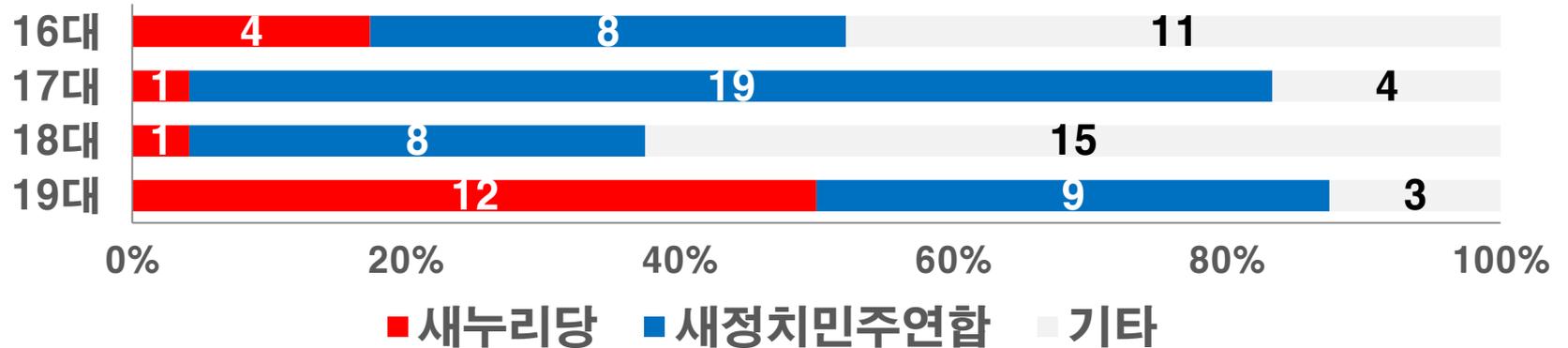
- 정체성유지 + 확산 ⇨ 신주류
- 2040 차세대 육성
- 비례대표 컨셉은?

9. 지역별 대응 전략은

수도권



충청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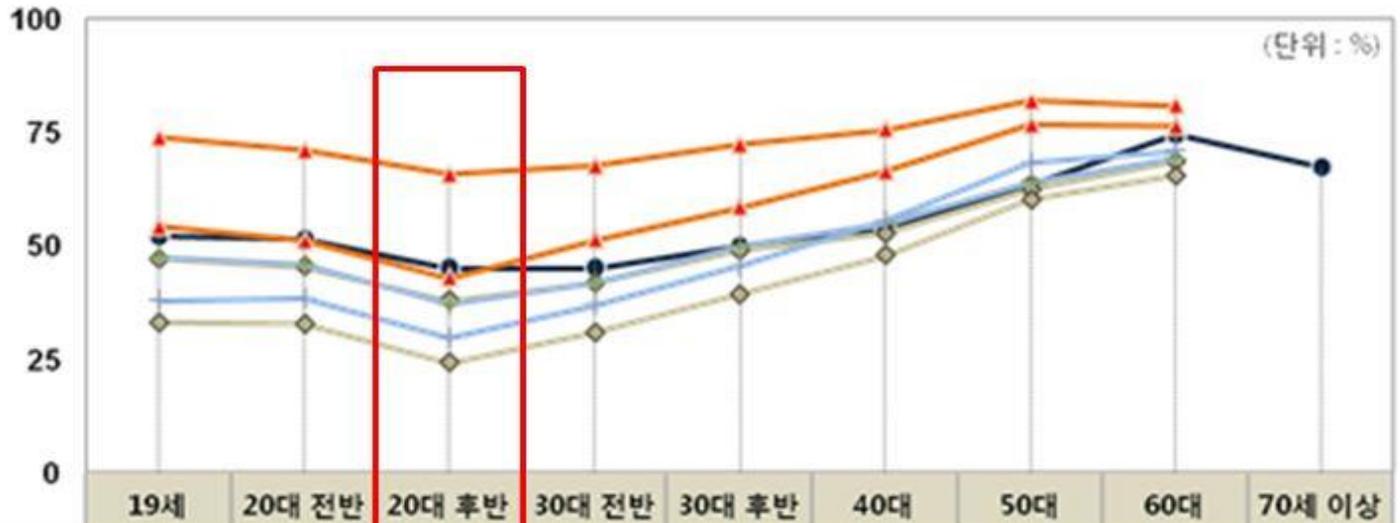


산술적 과반수

- 영남 67 호남+제주 33
- 충청+강원 34 (45% VS 55%)
- 수도권 112 (35% VS 65%)

10. 세대전쟁에서 세대융합으로

최근 선거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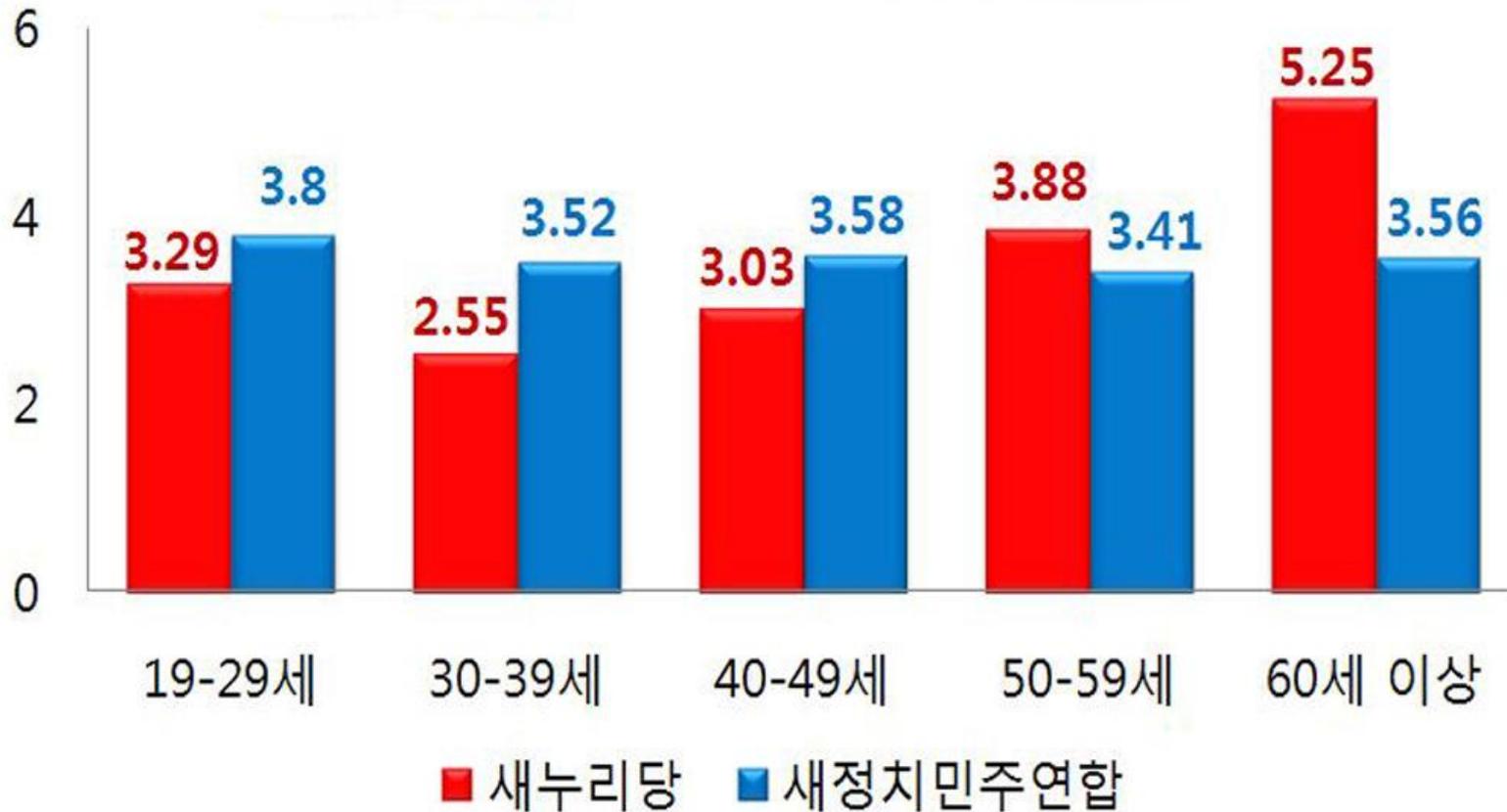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 '14 6회 지선	52.2	51.4	45.1	45.1	49.9	53.3	63.2	74.4	67.3
▲ '12 18대 대선	74.0	71.1	65.7	67.7	72.3	75.6	82.0	80.9	
◇ '12 19대 국선	47.2	45.4	37.9	41.8	49.1	52.6	62.4	68.6	
◆ '10 5회 지선	47.4	45.8	37.1	41.9	50.0	55.0	64.1	69.3	
◇ '08 18대 국선	33.2	32.9	24.2	31.0	39.4	47.9	60.3	65.5	
▲ '07 17대 대선	54.2	51.1	42.9	51.3	58.5	66.3	76.6	76.3	
◆ '06 4회 지선	37.9	38.3	29.6	37.0	45.6	55.4	68.2	70.9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에 대한 세대별 도덕성 평가 (단위: 점)

전체 평균

새누리당 3.63 vs 새정치민주연합 3.57



퍼펙트 스톰

2030의 이탈 / 해적당

진보 / 야권 분열

호남 / 호남 자민련

“2040의 최대화 · 5060의 우호화”

20대: 정치친화적 접근

-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음
- 20대들에게 정책이 미치는 영향의 체험기회 제공

30대: 정의·도덕 관심 / 가족친화적 정책

- 30대는 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세대, 우리사회 불공정성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 필요
- 30대 남성 - 새정치에 대한 신뢰회복 / 30대 여성 - 실현가능한 복지

40·50대: 생활 경제

- 40대 경제적 불안정층: 정치적 활성화 및 관심을 유지
-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40대와 50대를 묶고 안정적 변화, 책임감 있는 변화로 견인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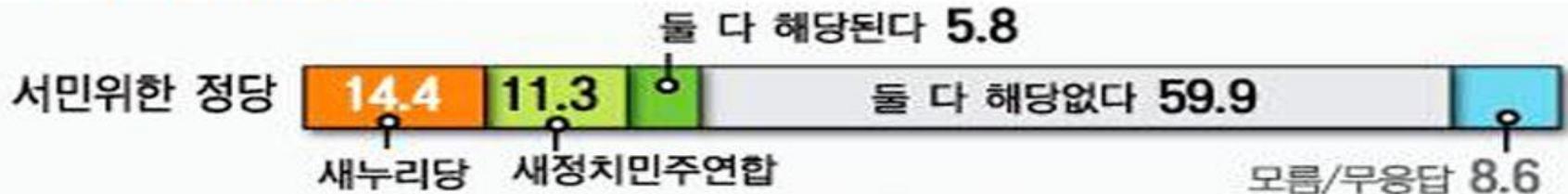
60대: 백세사회

- 백세사회는 60대 이상 고령층에게는 축복이자 재앙
- 누가 이들을 부양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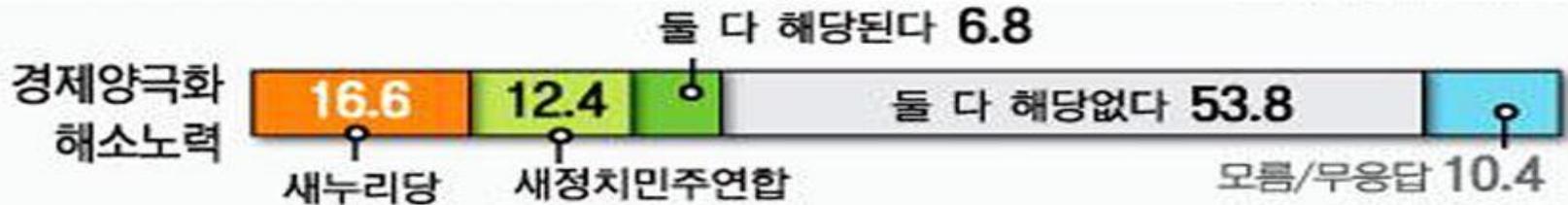
11. 이념 정책: 고용 임금 분배 평등 > 복지 재분배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인식

1. 서민을 위한 정당은?



2.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정당은?



3. 복지에 적극적인 정당은?



국민들의 주관적 중산층 귀속감

— 단위: %



8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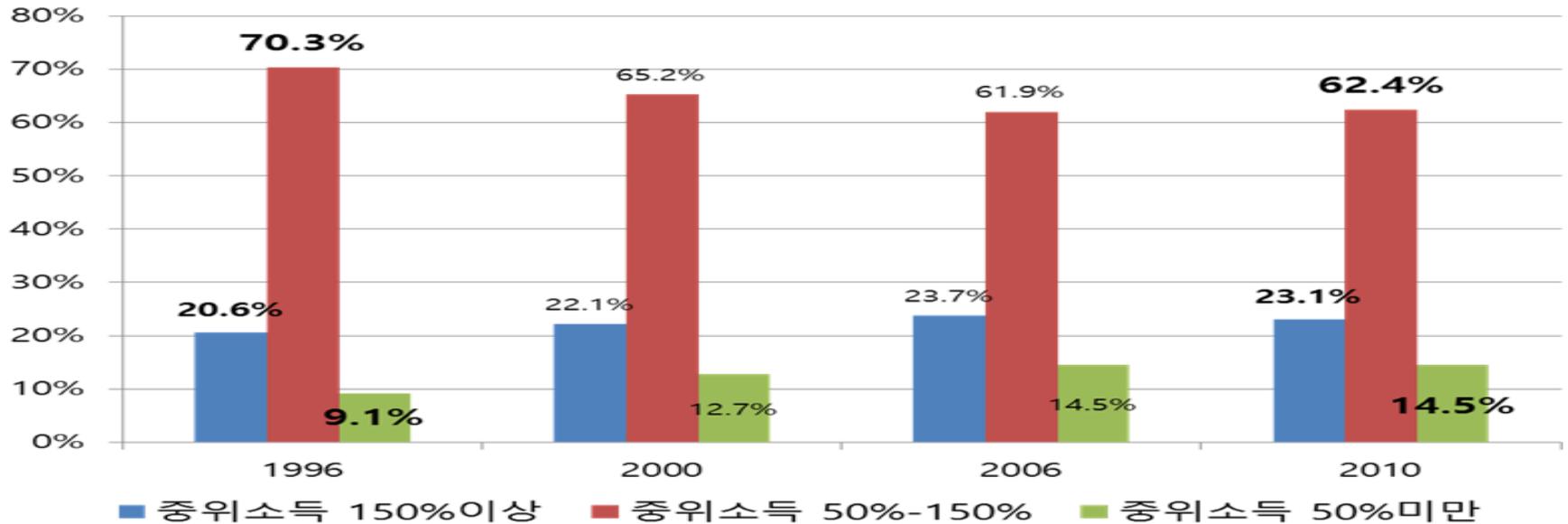
90년대 중반

2006년

2013년

출처: 이재열,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실제 중산층의 축소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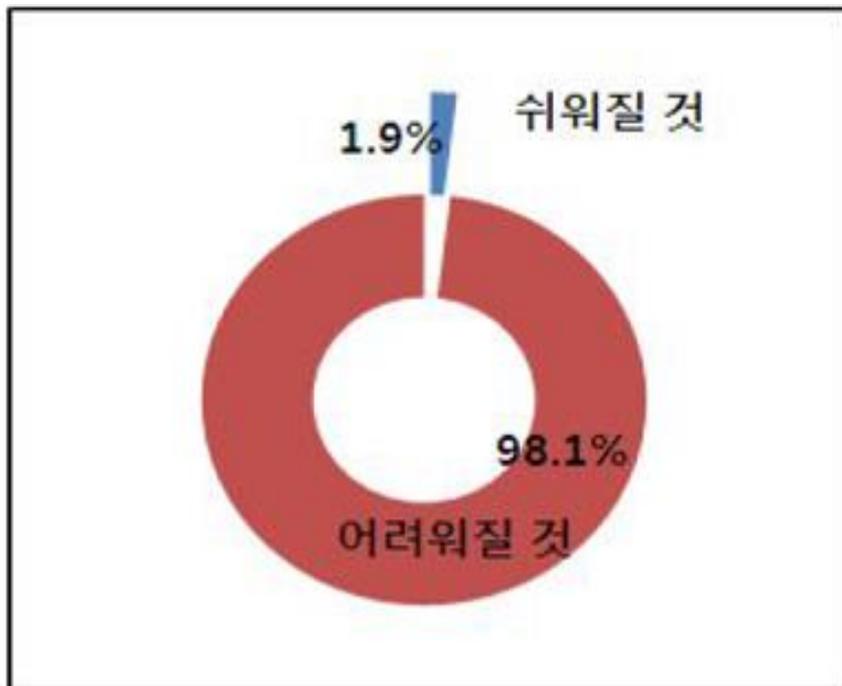


■ 중위소득 15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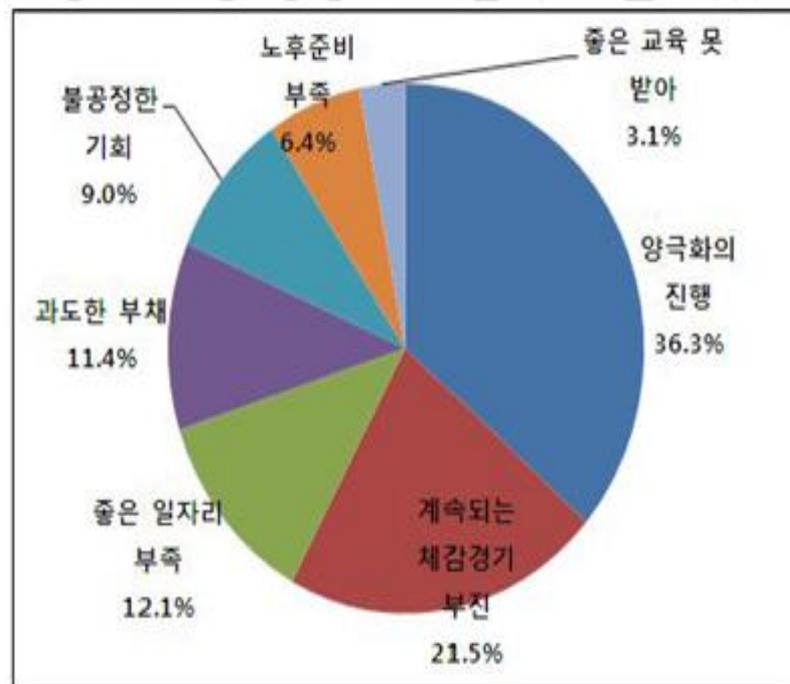
■ 중위소득 50%-150%

■ 중위소득 50%미만

향후 계층상승의 가능성



향후 계층상승이 어렵다고 본 이유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계층상승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양극화 진행, 좋은 일자리 부족, 불공정한 기회
- 따라서 임금증가, 고용증가, 분배없는 3무 성장, 성장할수록 불평등해지는 모순의 경제에 대한 대안 필요

정책 방향: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3개의 기둥

포용적 성장으로 선진복지 국가를

소득주도성장

- ① 비정규직 가산임금제
- ② 최저임금 현실화 및 생활임금 확산
- ③ 한계기업 및 한계자영업자 지원 강화
-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
- ⑤ 가계지출비용 감소

공정성장

- ① 경제생태계를 바꾸는
신산업 전략
MESIA / SWEET
- ② 창업국가
창업보험 도입 / 연대보증 폐지 등
- ③ 동반성장
대기업 반칙 불용, 이익공유제
- ④ 해외직판
경쟁촉진형 시장구조
- ⑤ 사회적 기업
공유경제 / 협동조합

일자리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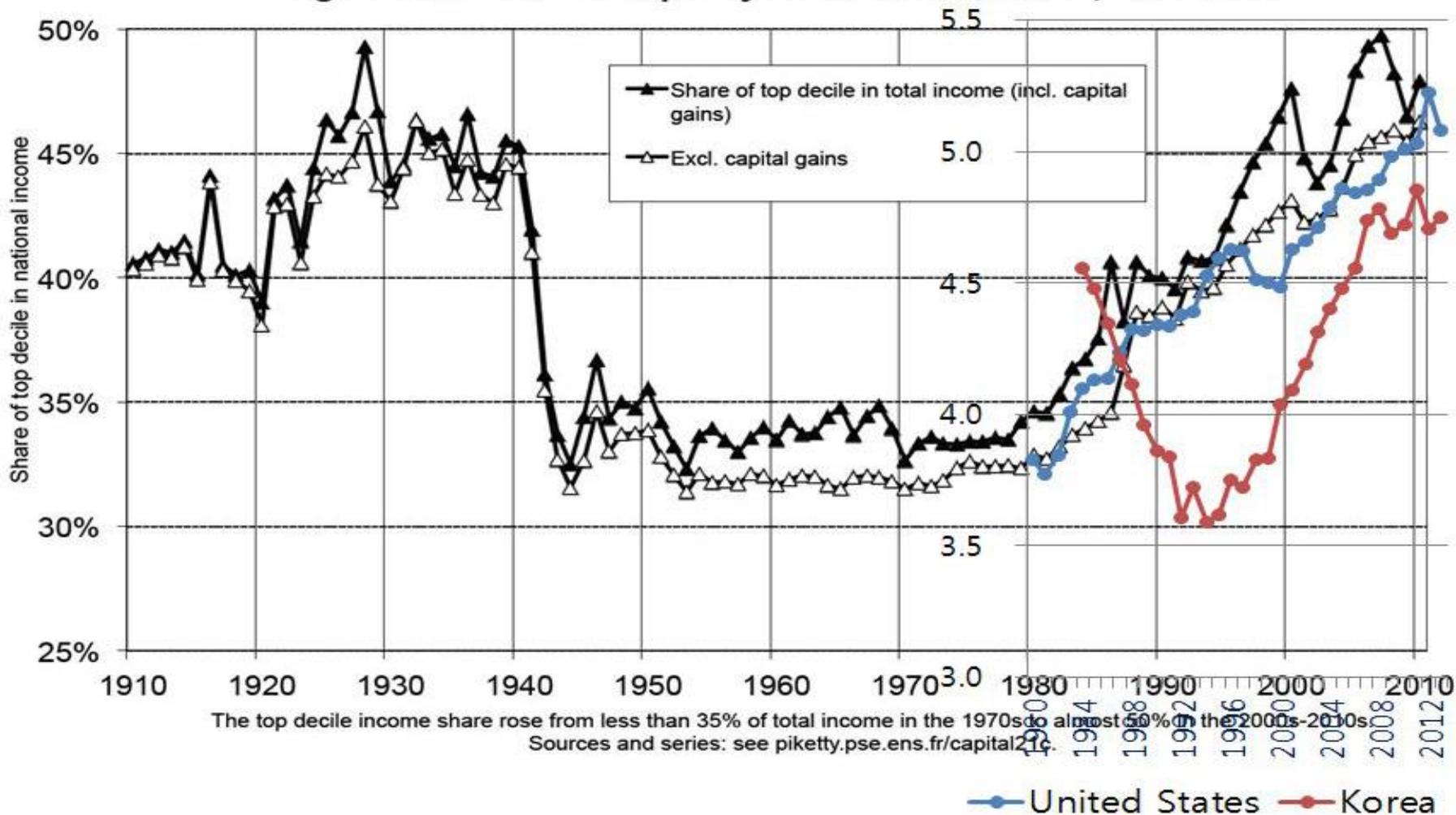
- ① 조세정의 실현
법인세 등 원상 회복 / 일세·늘세
- ② 복지재원 마련
중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
- ③ 일자리 창출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대

임금도 고용도 정책으로 정치로 변경 가능한가?

미국 역사에서 위대한 40년의 예

소득계층 상위 1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Figure 8.5.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0-2010



렌-마이드너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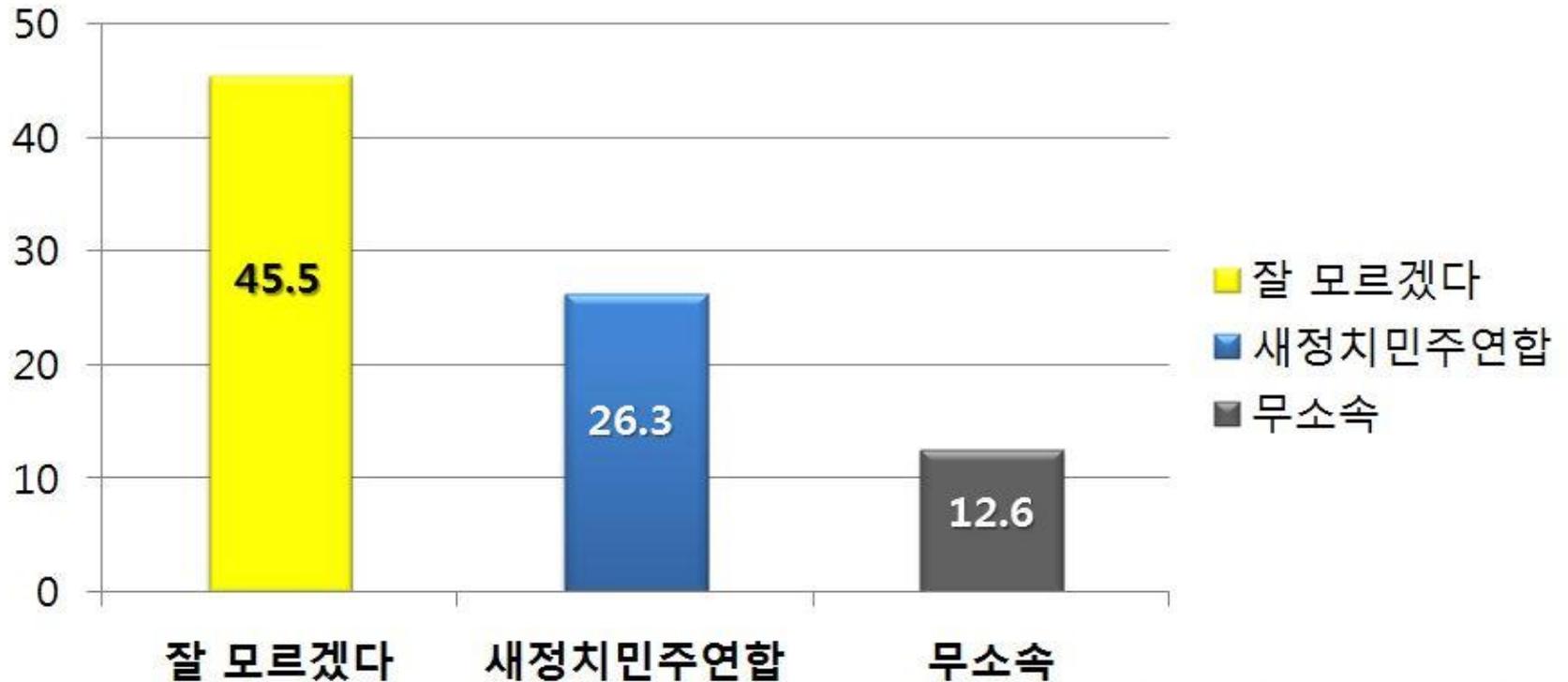


- ISO 고용친화경영인증제 = R&D 연계
- 대기업(건설/제조)와 1,2,3차 하청업체 임금연대

12. 지역: 호남 민심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호남유권자 26% 만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찍겠다

단위: %



출처: 광주일보-한백리서치

**민주정부 ·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는
광주정신 · 호남이고 2040과 진보가 결합**

야권 제3신당 창당시 지지 의향

단위: %

	사례수(명)	야권 제3신당 창당시 지지할 생각이 있다	야권 제3신당 창당시 지지할 생각이 없다
광주 서구을	(700)	49.1	50.9
서울 관악을	(700)	27.0	73.0
경기 성남중원	(700)	27.0	73.0
인천 서구강화을	(692)	28.5	71.5

광주서구을 지역유권자의 호남신당에 대한 인식

Base=전체	사례수 (명)	지지할 생각이 있다	지지할 생각이 없다
▣ 전체 ▣	(700)	49.1	50.9
지지정당 새정치민주연합	(266)	53.6	46.4
지지정당 없음/무응답	(367)	45.0	55.0
선호 정치인(세력)			
노무현대통령, 친노	(203)	46.2	53.8
김대중대통령, 민주당계	(261)	57.0	43.0
모름/무응답	(202)	41.5	58.5

조사기간 : 2015.5.8 ~ 9
 조사방법 : 유선전화 면접조사
 조사기관 : 민주정책연구원

조사지역 및 대상 : 광주 서구(을) 유권자 700명
 표본오차 : ±3.7%p(95% 신뢰수준)

**호남만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고
 호남 없이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13. 야권단일화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견

단위: %

	사례수 (명)	야권후보가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야권후보가 단일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야권후보가 단일화하는 문제에 관심 없다
▣ 전체 ▣	(2,792)	48.6	14.9	36.6
지역				
광주 서구을	(700)	58.0	13.5	28.5
서울 관악을	(700)	51.3	14.3	34.4
경기 성남중원	(700)	43.2	17.2	39.6
인천 서구강화을	(692)	41.7	14.5	43.8

친노/비노 분리에 대한 의견

단위: %

	사례수 (명)	갈라서는 것이 좋다	갈라서지 않고 단합을 이루는 것이 좋다
▣ 전체 ▣	(2,792)	22.3	77.7
지역			
광주 서구을	(700)	17.2	82.8
서울 관악을	(700)	23.9	76.1
경기 성남중원	(700)	22.1	77.9
인천 서구강화을	(692)	26.2	73.8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분열하면 끝장난다.

14.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국가는 전쟁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조직**

**정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변하고
선거에서 권력을 얻기 위한 조직**

15.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간디의 7대 사회악

- 원칙 없는 정치
- 도덕성 없는 상거래 행위
- 노동이 결합된 부(富)
-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
- 인간성이 사라진 과학
- 양심이 없는 쾌락
- 희생 없는 신앙

15.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새정치의 7대 혁신

- 도덕성과 규율을 가진 정당(신뢰 · 리더십)
-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전달할 수 있는 정당(정체성)
- 야당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하에 수권능력을 배양하는 정당(태도)
-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에 유능한 정당(정책)
- 여의도 정치에서 유연하면서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당(능력)
- 국민의 아픔에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온오프라인 소통에 밝은 정당(소통)
-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정당(비전)

16.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내년 총선 체크포인트

- ◎ 당을 잠에서 깨워내는 정풍의 시작
- ◎ 본질은 깊게, 외연은 넓게 / 뿌리는 깊게, 그늘은 넓게
- ◎ 야당다움이란, 야당성이란 인식에서 공유
- ◎ 생활공약 / 메가공약 / 지역공약
- ◎ 승리하는 선거 전략 홍보 시스템 구축
- ◎ 광범위한 문호개방 태세
- ◎ 종편 등 언론대책은
- ◎ 결국 무적함대는 리더십과 조직력

집단적 권력의지

and, or

개별적 생존의지

